

■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 24시

‘공포의 외인구단’ 개혁공천 칼날 거물·중진 정치인도 ‘불면의 밤’

“공천 심사위원이나 공천 특검이나”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이하 공심위)가 총선후보자 적격심사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사에 공포와 긴장, 고함소리와 탄식이 가득하다.
통합민주당 공심위는 당내에서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불린다. 정치권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들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는데 “기준이 정해지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누구이건 예고된 대대적 물갈이 앞에 떨 수밖에 없다.
우선, 박재승 위원장은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거의 매일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어 당내 현역의원들에게는 ‘저승사자’로 통한다.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정치적 내공이 만만치 않은데 민감한 사안은 언론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어 당 지도부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박 위원장의 ‘당 지도부 수도권 출마’ 추구에 박상천 공동 대표가 직격탄을 맞고 광강 양고 있다. 박 위원장의 코드 인사로 영입된 외부 위원들도 만만치 않다. 전체 12명 가운데 7인을 차지하는 외부위원들은 미리 의견을 조율한 뒤 회의에 참석, 당 출신 내부위원들을 제압하고 있다. 또, 당내 위원들이 공천 기준 등과 관련, 은근한 압력에 나서면 “과반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고 밀어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호남 현역의원 30% 물갈이가 방침이 통과되고 부정·비리 관련자 전원 공천 배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역의원들은 박재승 위원장과 외부위원들이 ‘대형사고’를 칠 것이라며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도배하라고 불렀는데

벽을 부수고 있다”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심위와 어떻게든 선(?)을 대보려는 예비후보들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인맥과 연줄을 총동원해도 공심위원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외부 공심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후의 일정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일부 공심위원들은 공천을 부탁하는 일부 예비후보들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심위의 철저한 보안때문에 미확인 루머는 넘쳐 흐른다. 당내에서는 공천 배제 대상인 호남지역 의원 9명의 살생부와 수도권 차출 대상 중진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있다. 특히, 1일부터는 광주를 시작으로 호남지역 예비후보들의 면접이 시작되면서 ‘물갈이 태풍’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겨울 끝... 봄 시작!
들 손질하느라 분주하다.

봄 시가지를 장식할 팬지 꽃들이 활짝 피어 화분에 옮겨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 북구 망월동 화훼 재배 농민들은 요즘 본격 출하를 앞둔 볼꽃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성이 추가 사퇴 압박

한승수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이명박 정부 초대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0명(전체 299명) 중 찬성 174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또 대법관 차관임명

동의안과 중앙선관위위원 유승삼·제갈용우 선출안도 일괄 처리했다.
통합민주당은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의원 개개인이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한 총리 후보자가 흡혈이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자유투표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5공(共) 표창,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이 드러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결론 짓고 추가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여야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통 불편 양해 바랍니다”

광주일보 주최 ‘제43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1일 오전 9시 10분(풀코스 9시 10분, 하프코스 9시 20분, 10km 9시 30분, 5km 9시 40분) 광주 월드컵경기장 서문을 출발해 남평을 경산리 437번지 풀반환점을 돌아 왕복하는 42.195km 코스에서 열립니다.

〈관객기사 18면〉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1만여명이 출전, 봄 기운이 완연한 광주월드컵 경기장 주변과 극락강 일원 순환코스에서 열린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회가 시작되는 오전9시부터 일반인 마스터스 참가자가 몰린다는 오후 3시까지 부득이하게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통제가 이뤄질 겁니다.

본사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스를 광주 외곽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휴일 나들이에 지장을 끼치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새 정부 차관급 25명 인사

장관급 총리실장 조중표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에 조중표(사진)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최중경 국제개발은행(IBRD) 이사를 임명하는 등 국무총리실과 15개 부처의 장·차관급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임명된 26명의 장·차관급 중 광주·전남 출신은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 등 6명이다. <프로필 2면>



〈조중표 실장〉

이번 인사는 새 정부의 실용 정신에 맞출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중시했으며, 정부조직 개편과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 | | | |
|---------|-----|---------|-----|-------------|
| 기획재정1 | 최중경 | 농림수산식품1 | 정학수 | 삼성중 1천억원 출연 |
| 기획재정2 | 배국환 | 농림수산식품2 | 박덕배 | 태안 기름 유출 관련 |
| 교육과학기술1 | 우형식 | 지식경제1 | 임채민 | |
| 교육과학기술2 | 박종구 | 지식경제2 | 이재훈 | |
| 외교통상1 | 권종락 | 보건복지가족 | 이병화 | |
| 외교통상2 | 김성환 | 환경 | 이병욱 | |
| 통일 | 홍양호 | 노동 | 정중수 | |
| 법무 | 문성우 | 여성 | 이인식 | |
| 국방 | 김종천 | 국토해양1 | 권도엽 | |
| 행정안전1 | 김영호 | 국토해양2 | 이재균 | |
| 행정안전2 | 정남준 | 총리실국무차장 | 박철곤 | |
| 문화체육관광1 | 김장실 | 총리실사무차장 | 김영철 | |
| 문화체육관광2 | 신재민 | | |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土)	2(日)
구름 조금 -1/10℃	차차 흐려져 비 2/9℃

News

- 국제유가·금값 사상 최고 ②
- 강진 ‘늦봄학교’ 학생들 ③
- 두루미캠프 온 러 청소년 ④
- 폴코스 이렇게 뛰세요 ⑫

Entertainment

- 영화·드라마 아줌마 만세 ⑧
- 스타일러 흥행 돌풍 거세다 ⑨



〈주격자〉

Wellbeing

- 식품 집중탐구-두충 ⑬



Books

- '대륙의 영혼 최재형' ⑭
- '친구의 애인' ⑮

광주 서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영룡 후원회

김영룡 후원회 (후원회장 김주식) | 농협 1072-02-073391 (예금주: 백영희)

후원 방법: 인터넷 카페 (http://www.yilim.net/에서 후원기금 및 후원카드 (주식형) 발급신청) (062-852-1192)

후원 안내: 누구나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 원금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는 금액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국방부차관 김영룡

학력: 전남 화순 생(57세), 농주초등학교 졸업, 광주무진중(남종) 졸업, 광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빛 언더메니(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경력: 15회 행정고시 수석합격,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 비서관(전), 새천년민주당 재정경제 수석전문위원(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전),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혁신기획본부장(전), 국방부 차관(전)

참신한 새 인물 모두가 인정하는 '경제전문가!!'

후원회 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06-2 옹수빌딩 702호 | T: (062) 652-0846~8 | F: (062) 652-0843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불가’

건교부 보고서 파문 확산

靑 “대통령 공약 유효...추진안 마련”

건설교통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에 ‘호남고속철도 완공 시기를 2017년에서 5년 앞당기는 것은 공사비가 2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 곤란하다는 내용의 건교부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건교부가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건교부는 조기 완공이 어려운 이유로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꼽았으며 완공 시기를 5년 앞당기려면 10조5천억원인 사업비가 12조4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또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도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만도 1년 이상 걸리고 용지 매수, 실시간 회색의 같은 절차를 마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건교부의 입장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남 발전의 토대를 흔들려는 정략적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각 부처에서 호남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건교부 보고서 파문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부처에서 영남 정권 눈치보기에 혈안이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등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공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